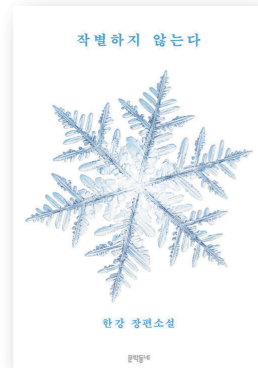


##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지난달 고양시 도서관 사서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천사소녀답정너 #디카페인유자차 #황귀친구마라탕 #무채색레드벨벳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도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글. 고양시 도서관센터

###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 문학동네

작가는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했다. 지극한 사랑은 어떤 아픔을 다루고 있을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는 요즘. 헤어짐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이 책을 펼쳐보았다.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과 그 안의 사람들이 있다. 비극과 슬픔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작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작가는 이 책으로 이야기한다.  
#천사소녀답정너

#### 책속한줄

“빠근한 사랑이 살갓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 작은 캠핑, 다녀오겠습니다



생활모험가 | 휴머니스트

캠핑은 하고 싶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 캠핑 영상과 책만 기웃거리는 나에게 “작은 캠핑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작가의 손을 잡고 작은 캠핑을 떠나보았다. 캠핑에서 가장 필요한 ‘시에라캡’과 ‘랜턴’, ‘침낭’까지. 초보 캠퍼가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소개해 준다.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명의 매력까지 다양한 사진들로 구경할 수 있다. 아직은 날이 추우니 정보를 모아 두었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꼭 떠나 봐야겠다. #디카페인유자차

#### 책속한줄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 비워내는 것도 필요한데, 늘 제 마음은 꽉 차 있고 분주했어요! 그랬던 시절을 지나 이전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느슨하게 해둘 수 있게 되었어요. 캠핑을 시작한 덕분입니다.”

### 재인, 재육, 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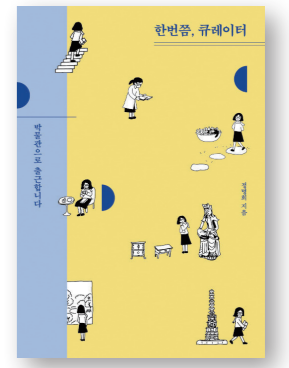
정세랑 | 은행나무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좋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 책의 세 남매는 우연한 기회로 별희한 초능력이 생기게 된다. 근데 이런 조그만 초능력이 사람을 구하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게 개개인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타인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초능력을 사용하는 히어로들 만큼 멋진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황귀친구마라탕

#### 책속한줄

“게다가 어쩌면 구해지는 쪽은 구조자 쪽인지도 몰라.”

### 한번쯤, 큐레이터



정명희 | 사회평론아카데미

박물관과 도서관, 큐레이터라는 단어는 묘한 동질감을 일으켰다. 이 책에는 하나의 전시를 기획할 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에 대해 적혀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을 마주해야 할 때,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일상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숨 돌리고, 실 수 있는 방법을 박물관의 전시장으로 표현한 작가. 그 말처럼 도서관도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무채색레드벨벳

#### 책속한줄

“어찌 보면 공부하는 이유뿐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도 자신만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도 비슷하다. 위대한 예술은 매번 새롭게 태어난다.”